

‘숙명의 라이벌’ 서삼석 vs 이윤석…세번째 총선 대결

[편집자주] 21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과 현역 국회의원이 다수 포진된 대안신당 등 야당과의 치열한 접전이 예고된다.

지역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와 판세를 분석해본다.

영암·무안·신안

영암·무안·신안 선거는 숙명의 라이벌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윤석 전 의원의 대결이 성사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안군수 3선 출신인 서 의원은 3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8년 6·13 재보궐선거에 당선돼 이번에는 재선에 나선다.

을 사퇴하고 서 의원이 당시 현역인 이전 의원에 맞서 총선에 도전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첫 대결인 2012년 민주통합당 경선에서는 이 전 의원이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 6·13 재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선 서 의원이 민주평화당으로 출마한 이 전 의원을 누르며 설욕했다.

서 의원은 2011년 무안군수를 중도 사퇴 후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경선에서 당시 재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에게 분배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이 의원과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 후보에 선정됐으나,

2008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당시 통합민주당 황호순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DJ 차남 김홍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면을 연출했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라이벌 서 의원의 도전을 뿌리치고 2012년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6년 당내 경선에서는 서 의원에 분배하며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당으로 옮겨 2018년 재대결에 나섰으나 또 다시 패배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는 대안신당 후보로 나서 다시 한번 국회 입성에 도전한다.

서삼석, 무안군수 3선 출신…現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직 맡아 당내 경선 유리

이윤석, 지역구 재선 지내…대안신당 후보로 박지원·권노갑 등 동교동계 지원

고향·나이·정치역정 등 비슷…백재욱·배용태·김팔봉 후보도 출사표

반면 지역구 재선을 자낸 이윤석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에 무릎을 꿇은 후 2018년 재보궐선거마저 패배 후 ‘심수’에 도전한다.

고향과 나이, 정치역정까지 비슷한 두 정치인의 대결은 지역구에서는 ‘뉴스’ 가이臬 정도로 일상이 됐다.

각각 1959년과 1960년 무안 출신인 서 의원과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나란히 5·6대 전남도의원을 지냈다.

이후 서 의원은 무안군수에 도전, 당선되면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 전 의원은 도의원 3선 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들의 본격적인 격돌은 무안군수직

국민의당 바람에 3% 차이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지만 선거 패배 후 침착하거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여타 정치인들과 달리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피켓을 목에 걸고 지역구 5일장을 돌며 낙선인사를 하는 모습에 지역민의 심금을 울렸다.

그런 정성이 받아들여진 듯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을 등에 업고 낙승을 거뒀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서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직도 맡고 있어 당내 경선에서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

반면 이 전 의원은 도의원 3선 후

박지원 의원 계보인 이 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권노갑·정대철 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의 촉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에 나섰다.

20여년을 중앙당에서 활동한 백 전 행정관은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지난 2014년 공직 퇴임 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끊임없이 출마설이 나왔던 배 전 부지사도 이번 경선에서는 승리를 목표로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의 김팔봉 공인노무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신봉우 기자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당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 5일장을 돌며 낙선인사를 하고 있다.



6/13 선거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권노갑 고문님, 박지원 대표님, 이윤석) 2018년 4월 1일 이윤석 자택에서...

이윤석 전 국회의원과 권노갑 고문, 박지원 의원이 2018년 4월 1일 전남 무안의 이 전 의원 집에서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출마 결의를 다졌다.



4·15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백재욱·배용태·김팔봉 후보(왼쪽부터)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